

漢字文化學을 통하여 본 漢字 字形의 의미 고찰*

李周殷**

<目 次>

1. 서론
2. 연구목적과 방법
 - 1) 연구목적
 - 2) 연구방법
3. 漢字 字形의 의미 고찰
4. 결론

1. 서론

漢字 字形을 살펴봄에 있어서, 甲骨文과 金文, 說文解字와 같은 古代 文獻을 통하여 한자의 기원(基源)을 거슬러 찾아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자의 많은 부분이 본래의 뜻(本義)과 다르게 해석되어 굳어져 버린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에 한자의 源流를 알아보고 고대 문헌들을 참고하여 더 확실한 뜻과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人倫을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반추(反芻)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甲骨文과 金文 등을 통하여 한자 자형을 고찰해 보면서, 漢字 一字 一字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004).

**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2. 연구목적과 방법

1) 연구목적

漢字文化學은 漢字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연구 분야를 통합하는 학문이다. 이와 관련된 현재의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지만, 漢字文化學의 임무는 매우 명확하다. 하나는 漢字를 하나의 부호 체계와 정보 체계로 삼아 한자 자체에 구비하고 있는 문화적 의의를 밝혀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자와 중국문화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는 곧 漢字 연구를 통하여 중국문화를 연구하고 文化學의 각도에서 漢字를 연구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1) 개념

한자의 3요소를 形, 音, 義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한자가 필수적으로 형체, 독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자는 形, 音, 義 라는 기본적인 요소 외에도, 그것 안에 문화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孝'라는 한자는 '孝'라는 形, '효'라는 音, '효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자식이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으로 古代 사회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가족 문화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甲骨文과 金文 자형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小篆 자형을 기준으로 하는 『說文解字』에서도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 중의 하나로서 그 형체를 통해 음과 뜻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아울러 그 형체 안에 다양한 문화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자가 지니는 문화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는 분야를 '漢字文化學' 이라고 한다.

(2) 연구방법

漢字文化學의 본체론과 관계론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漢字文化는 본체인 동시에 관계이기 때문에 본체만 중시하고 관계를 경시하거나, 관계만을 중시하고 본체를 경시하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漢字文化學이 성립될 수 없다. 漢字文化學은 본체론 연구를 기초로 나아가서 한자문화와 전체 漢文化의 관계, 즉 漢文化에서 한자의 지위, 漢文化에 대한 영향 등등을 탐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체론이라 한자문화의 내부 문제, 즉 한자 자체의 形, 音, 義 자료를 운용하여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연구한다면, 관계론은 한자문화의 외부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자문화에 대한 종적인 연구와 횡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체론

한자의 내부적 요소로 구성된다. 한자의 내부적 요소란 한자가 가지고 있는 形, 音, 義 이다. 字音과 字意, 특히 字意는 직접 언어의 부분까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가 되기도 하며, 많은 내용이 문자의 부분까지 침투하여 고대한어, 서면언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문자라는 載體를 논외로 할 수 없다.¹⁾

『漢字文化大觀』에 나타난 목차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漢字의 기원, 漢字형체의 변천, 漢字의 서사도구와 載體, 한자의 특징, 한자의 규범화·주음 및 簡化, 한자의 연구와 응용 등이 漢字文化學 연구의 본체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관계론

본체론의 연구가 漢字文化의 내부문제, 즉 한자 자체의 形, 音, 義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 포함된 문화적 요소들을 탐구해 내는 것이라면 관계론은 한자문화의 외부관계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적인 연구와 횡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²⁾

1) 何九(2000) 『漢字文化學』,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漢字文化大觀』의 漢字와 민족문화, 漢字와 한어 및 형제민족문자, 漢字와 문학예술, 漢字와 연호·성씨, 漢字와 의식형태·사유방식, 漢字와 兵·法·史, 漢字와 衣食住行, 漢字와 경제활동, 漢字와 동물·식물, 해외에서의 漢字 등등이다.

③ 연구내용

- 화폐 문화를 반영한 ‘朋’

朋은 商代에 화폐로 쓰였던 금조개를 가리키면서 돈을 헤아리는 수량사로 쓰였다. 원시시대에는 조개껍질로 장식품을 만들어 목에 거는 풍습이 있었는데, 商代에 이르러서 이러한 조개껍질을 화폐로 사용하였던 것이다.³⁾ 朋이 지금 ‘벗’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벗’을 의미하는 발음과 朋의 발음이 같아서 假借되어 쓰인 것이다.⁴⁾ 요컨대, 朋은 고대사회에서 화폐로 사용되던 조개를 켜어 놓은 모양을 본뜬 것으로 고대사회의 화폐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글자이다.⁵⁾

이 朋은 『詩經』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예문화를 반영한 ‘民’과 ‘臣’

民에 대해 『說文解字』에서는 ‘무지몽매한 여러 사람들’ 이라고 풀이하였으며, 지금은 ‘사람, 평민, 백성’ 등의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갑골문과 금문 자형을 보면 民은 날카로운 칼에 찢린 왼쪽 눈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즉 民은 ‘노예’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다. 노예제 사회에서 귀족계급은 노예의 한쪽 눈을 찢러 징벌의 표시로 삼거나 노예 신분임을 나타내었는데,⁶⁾ 이러한 노예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 民이다.

臣은 『說文解字』에서 ‘굴복한 모양을 본뜬 것으로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2) 何九盈 (2000) 『漢字文化學』,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3) 何金松 (2004) 『漢字文化解讀』,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4) 김연중 (2001: 407)

5) 『漢書』『食貨志 下』“大貝四寸八分, 二枚爲一朋, 直二百一十六. 壯貝三寸六分以上, 二枚爲一朋, 直五十. 幺貝二寸四分以上, 二枚爲一朋, 直三十. 小貝二分以上, 二枚爲一朋, 直十.”

6) 何金松 (2004: 505-506)

풀이하였으며, 지금은 주로 ‘신하’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갑골문과 금문 자형을 살펴보면 이 글자는 원래 ‘포로’나 ‘노예’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갑골문과 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눈’이다. 이것은 결박되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전쟁 포로의 치켜뜨고 있는 눈을 나타내는 것이며, 臣은 이러한 모양을 상형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처럼 臣의 본뜻은 ‘포로’, ‘노예’였다. 그러나 이후에 점차로 군주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감시하는 ‘신하, 관리’의 뜻으로 사용되었다.⁷⁾ 『詩經』 경문에서 臣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王臣, 虎臣, 臣工’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臣이 노예라는 뜻으로 쓰인 용례는 『禮記』 「少儀」의 ‘臣則左之’ (鄭玄注: 臣謂囚俘), 『尚書』 「費誓」의 ‘臣妾逋逃’ (孔安國傳: 男曰臣, 女曰妾)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3. 甲骨文字과 金文 등을 통하여 본 漢字의 字形 고찰

1) 貴(귀하다 귀) 𠄎

○ 8) 貴는 갑골문에서 두 손과 광주리와 흙(土)을 그려 흙 속에서 뭔가를 파거나 건져내는 모습을 그렸다. 광주리는 종종 생략되기도 했으며, 이후 흙(土) 대신 조개(貝·패)가 들어가 지금처럼 변했다. 복잡한 자형의 변화만큼 貴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께 들어 있었다. 갑골의 자형에 의하면 ‘흙 속에서 어떤 것을 파내다’가 貴의 기본적인 뜻으로 추정된다.

○ 고대 문명은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흙이나 갯벌에서 파내는 것들은 고대인들의 주요 먹거리인 동시에 생필품을 조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

7) 김연중 (2001: 906)

8) ○는 갑골문, 금문, 고대문헌 등에 근거한 내용 / + 는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내용, ⇒ 은 부연 설명을 기술한다.

다. 따라서 흙이나 갯벌에서 파낸 것들은 조개(貝)와 마찬가지로 아주 귀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貴하다. 가격이 높다는 뜻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 확장되어 '파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다'나 파낸 곳이 '무너지다'는 의미도 함께 생겼다. 또 조개 등을 건져내는 광주리에 주목하여 그 도구인 삼태기도 지칭했다.

○ 이렇게 여러 뜻을 가지 貴는 이후 새로운 의미부를 더하여 각각의 새 글자로 태어났다. 貴하다는 뜻은 가장 중심된 의미였기에 그대로 남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다'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책받침 부수를 더하여 遺로 분화했다. '무너지다'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阜(언덕 부)를 더하여 隕(무너지질 퇴)나 水를 더하여 潰(무너지질 썩)로, 삼태기를 나타낼 때에 竹을 더하여 蕘(삼태기 썩) 등으로 분화했다.

+ 이 자형을 갑골문에서 살펴보면, 흙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보니 조개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당시 조개는 물물교환의 수단으로서, 화폐의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보면, '비싸다'란 뜻으로 사용되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 '귀하다'에서 '비싸다'로 확장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또 찾아내지 못한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가치를, 보물을 찾아내어 개발해 내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고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2) 夏(여름 하)

○ 夏는 금문에서 크게 키워 그린 얼굴에 두 팔과 발이 그려진 사람의 모습을 했다.

○ 크게 그려진 얼굴은 고대 한자에서 일반적으로 분장을 한 제사장의 모습이며, 두 팔과 발은 율동적인 동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夏는 춤추는 제사장의 모습이며, 그것은 祈雨祭를 위한 춤이었다. 그래서 '춤'이 夏의 원래의 뜻이며, 祈雨祭에서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성대한 춤을 추어야 한다.

○ 여기에서 夏에 다시 ‘크다’는 뜻이 나왔고, 祈雨祭가 주로 여름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름’도 뜻하게 되었다.

○ 중국인들이 처음 세운 국가를 夏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큰’나라 라는 의미에서였다. 마치 우리 민족을 ‘한’ 민족이라 불렀던 것처럼, 夏에 집을 뜻하는 厂(기슭)이 더해진 廈는 ‘큰(夏) 집(厂)’을 뜻한다.

○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빌딩을 ‘따샤(廈)’라고 번역했다.

+ 夏(여름 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은 “夏”의 갑골문에서의 의미를 찾아낸 것처럼 한여름에 기우제(신에게 잘 보이려는 발로에서 성대하게 치렀던 의식)를 통하여 신에게 복을 구했던 것 같다. 어렵고 힘든 때, 신에게 제사하고 신에게 복을 구했던 마음들을 모으려 했던 것처럼 그만큼 신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

3) 華(꽃 화)

○ 華는 금문에서 화사(華奢)하게 핀 꽃이 흐드러져 있는 모양을 그렸으며, 여기에서 ‘꽃’이라는 의미가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中華(중화)에서 볼 수 있듯 ‘꽃’보다는 중국인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다.

○ 일찍부터 정착농경을 시작했던 중국에서 곡식은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기에 꽃에 대한 숭배는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 장쑤(江蘇) 성의 한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보면 사람 얼굴을 한 꽃을 피운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는 꽃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꽃 토tem을 극명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4) 民(백성 민)

○ 民은 금문에서 예리한 침 같은 것에 한쪽 눈이 찢린 모양이다. 옛날 전쟁에서 포로를 잡을 경우, 남자면 한쪽 눈을 찢러 노동력은 보존하되 반항능력은 줄여 노예로 삼았다. 이러한 예는 臧(착할 장)이나 童(아이 동)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民의 원래 뜻은 노예이며, 이후 지배자의 통치를 받는 계층이라는 의미에서 '백성'이라는 뜻이 나왔고, 다시 '사람'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5) 族(겨레 족)

○ 族은 갑골문에서 나무끼는 깃대(族·연)아래에 사람(大)이나 화살(矢·시)이 놓인 모양인데, 때로는 두 개씩 그려 그것이 여럿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화살은 가장 대표적 무기이기에 전쟁을 상징한다. 그래서 族은 '화살'이라는 의미로부터 함께 모여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같은 깃발 아래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래의 화살이라는 의미는 金(쇠 금)을 더한 鏑으로 '화살촉'의 의미를, 竹(대 죽)을 더한 簇으로 '화살대'를 구분해 표현했다.

⇒ 이렇게 볼 때, 民은 통치자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族은 그 통치자의 명령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 즉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이며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생겨난 고정된 개념이 기보다는, 통치자의 지배력이 행사될 수 있는 영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지배 이념에 동조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도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民族이라는 두 글자에 반영되어 있는 고대 사회의 집단 무의식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자민족을 구분하는 유효한 잣대가 될 때도 있다.

6) 禮

○ 원래 豊으로 쓰였는데 이후 示(보일 시)가 더해졌다.

○ 豊은 갑골문에서 윗부분은 옥(玉)이고 아랫부분은 술이 달린 북(鼓 고)의 모양이다. 북은 제사나 祭儀(제의)등에서 신을 경건하게 모시기 위해 사용되었고, 玉은 제사에 쓰던 禮玉을 의미한다.

○ 따라서 禮는 인간이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행하던 의식, 즉 제의에서 그 의미의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했던 경건한 마음의 禮節(예절) 이후에는 인간과 인간, 나아가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등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로부터 각종 제도나 규칙이라는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다.

7) 釋과 譯

○ ‘풀다’는 뜻을 가진 釋은 의미부인 변과 소리부인 역으로 구성되었다. 변은 갑골문(왼쪽 그림)에서 들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그렸는데, 금문에 들면서 획이 조금 구부러져 발자국이 더욱 사실적으로 변했으며, 이후 지금처럼 굳어졌다.

○ 들짐승의 발자국은 수렵 시절 그것을 辨別(변별)해 뒤쫓아 가며 사냥을 했기 때문에 변에 分別(분별)하다는 뜻이 생겼다. 변은 지금 부수로만 사용되지만, 悉에는 아직 원래의 의미가 남아 있다. 즉 悉은 변과 心(마음 심)으로 구성되어 짐승의 발자국(변)을 마음(心)으로 헤아린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잘 알다’, 남김없이 ‘모두’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나왔다.

○ 譯은 소전체(오른쪽 그림)에서 위쪽은 目(눈 목)을 가로로 놓힌 모습이고 아래쪽은 幸(다행 행)으로 되었다. 目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幸은 원래 수갑을 그려 죄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역은 ‘죄수를 감시하다’가 원래 뜻이다.

○ 그렇다면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역이 釋의 의미결정에도 관여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釋은 짐승의 발자국(변)을 자세히 살펴(역) 변별하듯, 상

세하게 풀어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실을 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는 繹 또한 뒤엀킨 실((떡,사)·떡)을 자세히 살펴(역) 풀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또 言(말씀 언)과 역이 결합된 譯은 '설문해자'의 풀이처럼 '이민족의 말을 풀어내는 것', 즉 翻譯(번역)을 말한다. 한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은 至難(지난)한 작업으로 대상언어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함은 물론 대응 '어휘(言)'를 대당히 '섬세하게 살펴(역) 選擇(선택)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 당나라 때 인도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겪으며 구해 온 불경을 19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번역해 낸 玄奘(현장) 법사의 번역 정신은 아직도 인류의 번역사에 新화로 남아 있다. 산스크리트 문자와 한자라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 불교와 유교라는 전혀 이질적인 사상 체계 속에서 그토록 철학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한자 어휘로 완벽히 소화해 내고, 생소한 경험들을 친숙한 중국의 이야기로 변형시킨 그의 번역 솜씨는 지금도 여전히 모범이기 때문이다.

8) 考(상고할 고)

○ 考는 形聲字이다. 金文 중의 形符는 머리가 긴 長發의 노인을 닮았다.

本義는 연령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며, 또한 돌아가신 父親을 가리킨다.

계다가 考는 또한 考察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研究', '推究'의 의미로 引申(引申) 되었다.

+ 이 자형은 갑골문에서 보면,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부수가 老(노인 로)와 같음을 찾아볼 수 있다. 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모습이 考(생각하다/상고하다 고)가 되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칼럼에서 우연히 사람이 60세가 넘어가서야 비로소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담겨 낸 책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우리 나이가 60세-7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 그 때 발간해 내는 저서가 가장 인생

의 연륜과 지혜를 오롯이 잘 담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의 참 맛이 묻어나는 책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考(생각하다 고)가 결국은 노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부수 또한 老(노인 로)와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9) 處(곳 처)

○ 處는 會意字이다. 金文의 處字는 가죽 관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 本義는 잠시 머무는 곳, 정지하여 휴식하는 곳에서 居住하는 곳으로 인신(引申)되었다.

10) 葛藤(갈등)

○ 葛을 구성하는 曷은 소전체에서 曰(가로 왈)과 冂(빌 개)로 이루어졌는데, 曰은 입(口)에 가로획(一)이 더해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형상화했고, 冂는 갑골문에서 '이미 바라다'나 祈求(기구)의 뜻으로 쓰였다. 이처럼 曷은 입을 크게 벌린 모습(曰)에 바라다(冂)의 뜻이 더해져, 목소리를 높여 어떤 것을 요구함을 나타낸다.

○ 그러나 曷이 '어찌' 라는 의문사로 가차되자 원래 의미는 다시 口를 더한 喝로 표현했다.

○ 따라서 喝은 喝采(갈채)에서와 같이 입을 벌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曷로 구성된 合成字는 대부분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예컨대, 渴은 목이 말라 입을 크게 벌리고(曷) 물(水)을 애타게 그리는 모습을 그렸다. 또 謁(아뢴 알)은 높은 사람을 찾아뵙다(謁見; 알현)는 뜻인데, 말(言)로써 어떤 것을 요구하기(曷) 위해 찾아가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 藤은 艸와 藤로 이루어졌다. 艸는 초목을 의미하고, 藤은 소전체에서 의미부인 水와 소리부인 朕(나 짐)으로 구성되어 물이 솟구침을 말했다. 滕과 비슷한 구

조로 된 글자들, 예컨대 騰오를 등은 말(馬)이 날아오르듯 위로 솟구치는 것을, 騰베길 등은 말(言)이 종위 위로 ‘올러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藤은 솟구치는 물줄기(騰)처럼 여러 갈래로 위를 향해 자라나는 식물(艸)인 등나무를 말한다.

⇒ 葛(葛)과 등(藤)은 모두 덩굴식물이다. 덩굴이 제대로 뻗으려면 다른 나무를 의지해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다른 나무처럼 가지를 하나씩 뻗지 않고 여럿으로 갈라진 채 자란다. 그래서 葛과 藤이 결합해 분얼과 영킴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葛의 葛에는 입을 크게 벌려 어떤 것을 요구함이, 藤의 藤에는 여러 갈래로 솟구치는 물줄기의 뜻이 들어있음을 고려한다면, 葛藤은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는 데서 출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갈등도 더 커진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진다고도 하지만, 오히려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갈등의 골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이 갑골문의 어원에서 찾아 간다면, 한자를 통해 큰 좋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11) 擧

○ 形聲字. 손(手)는 形이고, 여(與)는 聲이다. 본뜻은 양손으로 위를 향하여 들어 올리는 것이다. 행동(行動)을 가리키는 말로 인신(引申)되었다. 또한 위를 향하여 인재를 추천하여 등용하는 뜻으로 인신 되었다. 흥기(興起)하다. 발동(發動)하다.

○ 특별히 병사를 들어 쓰는 것(擧兵)을 가리킨다. 또한 ‘신청하다’, ‘제기하다’란 뜻으로도 쓰인다.

12) 闷死了

○ 어느 날 문득 모임자리에서 ‘闷死了’이란 중국어를 쓰면서, 이 闷 자형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門(문 문) 字 안에 心(마음 심)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답

답할까. 사람이 말할 상대가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또 답답하게 느껴질까. 문 속에 마음이 들어 있어 나갈 통로가 발설할 상대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 보니, 답답함의 정도를 더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이 자형은 ‘문 속에 갇힌 마음’이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니, 우리 주위에 답답할 정도로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힘들어 하고 낙담해 하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주위의 힘든 사람들을 둘러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힘들어하는 말할 상대가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먼저 손 내밀어 잡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13) 憎惡

○ 憎은 心과 曾으로 구성되었다. 曾은 금문에서 음식을 찌는 시루와 그 위로 피어오르는 증기(蒸氣)를 그렸다는 것이 정설이다. 시루는 용기 아래에 물을 붓고 중간에 가름대를 놓고 그 위로 찢 음식을 놓아 요리하는 기구이다.

○ 그래서 금문의 아랫부분은 용기를, 중간부분은 가름대의 평면도를, 윗부분은 피어오르는 증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증은 ‘시루’가 원래 뜻이다. 하지만 이후 ‘일찍이’라는 부사어로 가차 되면서 원래 뜻은 瓦(기와 와)를 더한 甑(기루 증)으로 표기하였는데, 瓦를 더한 것은 질그릇으로 된 시루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 시루는 지금의 모양에서도 상상되듯, 다른 솥과는 달리 여러 층으로 구성된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曾은 ‘층층이 겹을 이룬’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예컨대 層(층 층)은 여러 층을 이룬(曾) 집(尸 시), 憎은 층층이(曾) 다져 쌓은 흙담(土)으로부터 ‘더하다’는 뜻을, 贈은 재물(貝·패)을 더하여(曾) ‘증여(贈與)하다’는 뜻을, 纒(비단 증)은 가는 비단실(糸)로 겹겹이(曾) 정교하게 짠 비단을 말한다. 憎 역시 상대방에 대한 겹겹이 쌓인(曾) 마음(心)을 말한다. 지독한 미움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 아래서부터 층층이 쌓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𡇗은 의미부도 결합하고 있다.

○ 𡇗는 의미부인 心과 소리부인 亞로 구성된, 독음을 여럿 가지는 글자이다. 亞는 갑골문에서부터 지금의 모양과 유사한데, 무덤의 묘실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무덤의 玄室(현실·관을 놓는 곳)의 평면도를 그린 것이 亞이다. 亞에서 사방으로 뻗은 길은 동서남북의 방위를 뜻하며, 이는 당시 사람들이 네모꼴이라고 생각했던 땅 모양을 상징한다.

○ 갑골문에 의하면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관리를 亞士(아사)라고 했는데, 이후의 관직으로 말하자면 商卿(상경) 다음 가는 중요한 관직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제례에서도 처음 잔을 드리는 初獻官(초헌관) 다음의 亞獻官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亞에 亞聖(아성)처럼 ‘버금’이라는 뜻이 생겼다. 이처럼 亞는 시신의 안치와 관련이 있으며, 이후 시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낌 등으로부터 ‘흉측하다’나 ‘싫어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亞에 心이 더해진 𡇗는 싫어하는 마음(心), 여기서 다시 ‘나쁘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 安

+ 이 자형은 집 안(갓 머리)에 여자가 있어 ‘편안하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집 안(갓 머리)은 결혼해서 남편의 집을 말하는 것으로 여자가 결혼 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남편 집으로 들어갈 때 편안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전부터 노처녀 히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 본다. 그래서 결혼 전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고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 히스테리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한자의 어원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15) 釋과 譯

○ ‘풀다’는 뜻을 가진 釋은 의미부인 변과 소리부인 역으로 구성되었다. 변은 갑골문(왼쪽그림)에서 들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그렸는데, 금문에 들면서 획이 조금 부러져 발자국이 더욱 사실적으로 변했으며, 이후 지금처럼 굳어졌다.

○ 들짐승의 발자국은 수렵 시절 그것을 辨別(변별)해 뒤쫓아 가며 사냥을 했기 때문에 변에 分別(분별)하다는 뜻이 생겼다. 변은 지금 부수로만 사용되지만, 悉에는 아직 원래의 의미가 남아 있다. 즉 悉은 변과 心(마음 심)으로 구성되어 짐승의 발자국(변)을 마음(心)으로 헤아린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잘 알다’, 남김없이 ‘모두’,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나왔다.

○ 譯은 소전체(오른쪽 그림)에서 위쪽은 目(눈 목)을 가로로 놓힌 모습이고 아래쪽은 幸(다행 행)으로 되었다. 目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幸은 원래 수갑을 그려 죄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역은 ‘죄수를 감시하다’가 원래 뜻이다.

○ 그렇다면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역이 釋의 의미결정에도 관여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釋은 짐승의 발자국(변)을 자세히 살펴(역) 변별하듯, 상세하게 풀어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실을 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는 繹 또한 뒤엎킨 실((떡, 사)·떡)을 자세히 살펴(역) 풀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또 言(말씀 언)과 역이 결합된 譯은 ‘설문해자’의 풀이처럼 ‘이민족의 말을 풀어내는 것’, 즉 翻譯(번역)을 말한다. 한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은 至難(지난)한 작업으로 대상언어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함은 물론 대응 ‘어휘(言)’를 대단히 ‘섬세하게 살펴(역) 選擇(선택)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 당나라 때 인도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겪으며 구해 온 불경을 19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번역해 낸 현장법사의 번역 정신은 아직도 인류의 번역사에 신화로 남아 있다. 산스크리트 문자와 한자라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 불교와 유교라는 전혀 이질적인 사상체계 속에서 그토록 철학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한자 어휘로 완벽히 소화해 내고, 생소한 경험들을 친숙한 중국의 이야기로 변형시킨

그의 번역 솜씨는 지금도 여전히 모범이기 때문이다.

16) 進歩

○ 進은 금문에서 새(佳)가 걸어가는(책받침 부수) 모습을 형상화했다. 새가 걸어가는 특징은 무엇일까. 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만 걸어가지 뒤로는 걸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進은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비록 걸음이 느리기는 하지만 뒤로 가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는 새의 걸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은 새의 걸음처럼 빠르지도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한다.

○ 하지만 여기에는 한 눈 팔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는 것이 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하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이 앞서 나가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근대화와 자본화의 물결 속에 쉽고 빠른 것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한번쯤 곱씹어 보아야 할 글자가 아닐까 싶다.

○ 步는 갑골문에서는 두 개의 발(止 지)로 구성되었는데 위쪽이 오른쪽 발을, 아래쪽이 왼쪽 발을 그려 각각 다른 발의 모양이다. 두 발로 걷는 모습을 그렸으며, 발이 앞쪽을 향해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涉(건널 섭)은 물을 건너는 발걸음을 그렸다.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 그래서 進歩란 사람이 오르막을 차고 오르듯이, 뒤돌아갈 수 없는 새의 걸음 마냥 느리고 미련해 보일망정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란 革命이나 革新과 같이 단번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과는 궤를 달리 하는 글자이다.

⇒ 進歩는 빠른 속도나 급속한 변화가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목표도 작은 것의

꾸준한 실천에서 생겨난다는,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인내심의 필요성을 역설한 글자로도 볼 수 있다.

17) 禮

○ 禮는 원래 豊으로 썼는데 이후 示(보일 시)가 더해졌다. 豊은 갑골문에서 윗부분은 玉이고 아랫부분은 술이 달린 북(鼓·고)의 모양이다. 북은 제사나 祭儀(제의) 등에서 신을 경건하게 모시기 위해 사용되었고, 玉은 제사에 쓰던 禮玉을 의미한다. 따라서 豊은 玉과 북 등을 동원해서 경건하게 신을 모시던 행위를 일컬었고, 이로부터 禮度(예도)나 '절'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혹자는 豊의 아랫부분을 북이 아닌 그릇(豆·두)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게 해도 이는 제사에 사용했던 祭器(제기)를 의미하기에 禮리는 기본적인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禮는 인간에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행하던 의식, 즉 제의에서 그 의미의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했던 경건한 마음의 禮節이 이후에는 인간과 인간, 나아가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등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로부터 각종 제도나 규칙이라는 의미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때 禮나 法은 다른 뜻을 가지지 않는다. 私心이 없는 公평함이 法이요, 신 앞에서 가지는 敬拜(경배)의 마음이 禮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이다.

18) 危險과 機會

○ 危機가 機會(기회) 리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危는 소전체에서 바위 언덕 위에 선 사람의 위태함을 그렸다. 이후 사람의 앓은 모습을 그린 모양이 더해져 지금의 危가 되었다. 하지만 갑골문의 危는 소전체와 다른 모양이다. 이에 관한 풀이는 다양하지만, 敬器(의기·균형

을 살필 수 있도록 설계된 고대 중국의 기물)를 그렸다는 설이 통용되고 있다.

한때 공자가 노나라 환공을 모신 사당에서 欹器를 보고서 사당 관리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가 앉은 자리 곁에 두는 기물이라고 하자 공자가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숙이 비면 기울어지고, 적당하면 바르게 되고, 가득 차면 뒤집어진다던 그 기물이구나”라고 했다. 이처럼 欹器는 옛 사람들이 자리의 오른 편에 두고 일의 처리나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로 삼았던 것이다. 자리(座·좌)의 오른쪽(右·우)에 놓아두는 것이라고 해서 欹器와는 달리 座右라고 불렀고, 거기에는 좋은 글을 자주 새겼는데 이를 좌우명(座右銘)이라고 하였다. 危는 欹器의 속성처럼 아주 위태로워 균형을 잡기가 힘든 모습을 말한다. 물론 이후에 언덕 위에 올라선 사람의 모습으로 자형이 변하긴 했지만.

○ 機는 木과 機로 구성되었는데 機는 소리부도 겸한다. 機는 금문에서부터 나타나며 베틀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형에서 실타래를 형상화한 么가 두 개 그려졌고, 오른쪽의 戈(창 과)는 베틀의 모양이 변형된 것이며, 왼쪽 아래의 사람(人)은 베틀에 앉아 베 짜는 사람의 모습이다. 따라서 機는 베틀이 원래 뜻이며, 베짜기는 대단히 섬세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세밀함’이라는 뜻이 생겼다. 그러자 이후 베틀을 따로 표현하기 위해 木을 더하여 機로 발전되었는데, 木을 더한 것은 베틀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고대사회에서 베틀은 아마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며 대표적인 機械였을 것이다. 그래서 機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계나 기물을 총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危機라는 단어는 균형 잡기가 아주 힘든 ‘위태한 기물’이라는 뜻이지만, 機가 때와 시간을 의미하는 뜻으로 확장되면서 균형을 제대로 제때 잡아주기만 하면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19) 桎과 梏

○ 한국인들처럼 桎梏의 역사를 살아 온 민족이 또 있을까. 살아온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최근까지도 우리의 정치가 桎梏과 矛盾의 極點을 향해 치달았던 흔적이 한둘이 아니다. 桎梏이란 발에 차는 차꼬와 손에 차는 수갑이라는 뜻으로, 자유를 가질 수 없도록 구속하여 답답하기 그지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 桎은 의미부인 木 과 소리부인 至로 이루어져, 발에 차는 나무(木) 형틀을 말한다. 至가 소리부로 쓰여 '질'로 읽히는 것은 姪(조카 질)이나 室(막힐 질)에서 볼 수 있고, 독음이 조금 변했지만, 室(집 실)도 마찬가지이다.

○ 至는 갑골문에서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모양을 그려 '도착하다', '이르다'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 '極點에 도달하다'는 뜻으로 확장되어 지극하다는 말이 생겼다. 至가 지극하다는 의미로 쓰이자 발음을 나타내는 刀(칼 도)를 더하여 到(이를 도)가 만들어졌다. '이르게 하다'는 使役(사역)의 의미로 쓰일 때는 손에 매를 든 모습인 攴(칠 복)을 더하여 致(보낼 치)로 만들었다.

○ 梏은 木이 의미부이고 告가 소리부로, 손에 차는 나무(木) 수갑을 말한다. 告는 갑골문에서 牛와 口로 이루어져, 소를 희생제물로 삼아 告祝(고축·신에게 고하며 뱃) 하는 모습을 그렸다. 告가 소리부로 쓰여 '곡'으로 읽히는 것은 鵠(고니 곡), 鬻(고할 곡)에서 볼 수 있으며, 독음이 조금 변했지만, 酷(지독할 혹)도 같은 경우이다. 梏도 두 발을 따로 따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 옛날의 법에 의하면, 桎과 梏은 지은 죄질에 의거해 집행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즉, 上罪에는 桎과 梏을, 中罪에는 姪과 梏을 집행했으며, 下罪에는 梏을 집행했으며, 죄를 지은 자가 왕족일 경우에는 죄질에 관계없이 梏을 시행했다고 한다.

20) 責任

○ 선택이란 하나를 제외한 다른 수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선택은 결정이

요, 결정은 위기이며, 그래서 결정에는 언제나 큰 책임이 따른다.

○ 責은 갑골문에서 束(가시 자)와 貝(조개 패)로 이루어졌는데, 束은 소리부도 겸한다.

○ 束은 원래 화살처럼 하늘로 솟은 나무(木) 모양에 양쪽으로 가시가 그려진 모양이며 이로써 '가시나무'를 형상화했다. 그래서 束가 가로로 둘 합쳐진 棘(가시나무 극)은 탕자나무처럼 옆으로 우거져 자라는 가시나무의 특성을, 세로로 둘 합쳐진 棗(대추나무 조)는 하늘을 향해 높이 자라는 가시를 가진 키 큰 대추나무의 특성을 반영해 만든 글자다. 그리고 칼(刀)과 가시(束)의 속성이 합쳐진 刺(찌를 자)에서 보듯, 가시는 아픔과 어려움과 叱責(질책)의 상징이다. 貝는 조개를 그렸으며, 고대 중국에서 화폐로 쓰였다. 그래서 責은 인간의 어려움 중 가장 힘든 것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이며, 재화(財貨)와 관련된 이익에서 언제나 분란이 일어남을 보여주는 글자로, '대단히 품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責은 가시처럼(束) 예리하게 꾸짖고 돈(貝)으로 배상하게 하는 책무와 책임감을 말하며, 그런 책무(責)를 짊어진 사람(人)을 債(빚 채)라 했다.

○ 任은 人과 壬으로 구성되었다. 壬은 갑골문에서 이미 간지자로만 쓰여 그것이 무엇을 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낱실(세로 방향으로 놓인 실)이 장착된 베틀의 모양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문에서는 중간에 점을 더해 베를 짤 때 낱실 사이로 들락거리는 북(杼·저)을 형상함으로써, 이것이 베틀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壬은 베틀을 그렸으며, 베짜기는 대단히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기에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도맡아서 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任에 '맡다'는 뜻이 생겼고, 壬이 간지자로 가차되어 쓰이자 다시 人을 더해 任으로 원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任은 어떤 일을 도맡아 책임지는 것을, 飪은 베 짜듯 세심하게(壬) 음식(食)을 만드는 것을, 妊(애 벨 입)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조심해야 할 때를 말한다. 따라서 책임이란 경제가 잘 풀리고 사회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머피의 법칙처럼 만사가 꼬여 더없이 복잡하고 어려워져 그것이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될 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責任은 아무나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任에서 보듯 베를 가장

잘 짤 수 있는 책임자에게 맡기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4. 결론

漢字文化學은 漢字를 연구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漢字의 형체구조를 중요한 근거로 삼기 때문에 漢字학에서 파생된 학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漢字文化學은 文化人類學의 연구성과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에서는 두 학문이 서로 보충과 증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文化言語學은 한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이며, 漢語 연구의 한 줄기이다. 文化言語學은 漢語에 대한 모든 연구를 포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漢字文化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없다. 漢字文化學과 文化言語學은 文化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은 달리하는 학문인 것이다.

본고의 내용들을 기점으로 삼아, 앞으로 더 보충하고 노력하여 우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생수를 끌어올리듯이 漢字 一字, 一字의 의미 고찰에 정성의 수를 놓으며 더욱 진일보된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 김언중, 『한자의 뿌리 읽기』, 문학동네, 2001.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1982.
 高明, 『古文字類編』, 台北: 大通書局, 1986.
 王延林, 『常用古文字字典』,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87.
 于省吾, 『甲骨文字古林』, 北京: 中華書局, 1996.
 河永三, 『연상한자: 문화 속에 녹아있는 한자 뿌리 읽기』, 서울: 예담차이나, 2004.
 河永三, 『한자야, 미안해 "너무 재밌어서"』, 랜덤하우스, 2007.
 何九, 『漢字文化學』,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2000.
 何九盈, 『漢字文化學』,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2000.

- 何金松, 『漢字文化解讀』,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04.
허신·단옥재(注), 『설문해자注』, 台北: 漢京文化事業公司, 1983.
許進雄, 홍희(譯), 『중국고대사회』, 서울: 동문선, 1991.

〈Abstract〉

I thought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up the origins of Chinese characters through ancient texts such as 甲骨文字 and 金文. Many parts of the kanji that I use now ar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meaning, and it seems that many cases have been hardened.

Therefore, it is not only academic value to recognize the origin of Hanja and to look at the meaning and meaning more clearly by referring to the ancient literature, but also to ruminate our image of living in prefecture, There is a big advantage that it can be.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be possible with the number of sincerity in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one character and one character, as if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the spots.

Key Words: Origin of Chinese characters, Ancient literature, Meaning, 甲骨文字,
金文

이 논문은 2017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7년 2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2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